



비오는 와중에도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칙칙폭폭 그림책 속으로' 프로그램.

## 2005 파주어린이책잔치

어린이책 담론 확산의 장...  
다양한 테마전시 눈길  
어린이 체험요소 배치,  
책과의 심리적 거리 좁혀

“세미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공부거리를 남겨준 귀한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였어요.”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김세희 회장은 올해 파주어린이책잔치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의 말처럼 행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양질의 어린이책 담론이 펼쳐졌던 자리”로 평가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파주출판단지에서 치러진 파주어린이책잔치에서 참관객들은 특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주전시장에 마련된 다양한 전시에 관심을 보였다. 이 공간에선 1950년대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던 이와사키 치히로의 초창기 그림책과 원화, 1998년에 작고한 우리작가 이우경 씨의 회고 원화, 그리고 세계적인 그림책작가 5인의 그림책 전작이 소개됐다. 평소 어린이책에 관심이 많았다는 주부 서성우 씨(경기도 고양시)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림책들을 원화로 감상했다는 데서 더없이 새로운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파주어린이책축제에서 파주어린이책잔치로 이름을 바꿨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호백 씨는 “행사 자체의 흥행성보단, 차분하게 출판사와 일반 대중의 문화적 능력을 살찌운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밝혔다. 사실 흥행을 노린 대규모 이벤트를 지양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주최측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일각에선 ‘어린이책 담론 확산의 장’이란 측면에서 이호백·신경숙 씨 등 전문 현장기획자가 참여한 점이 두드러진다는 반응도 보였다. “해외도서전에서 호평을 받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는 얘기다. 세미나에 참여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최용호 씨는 각 개전투식으로 뿔뿔이 흩어져 일하고 고민하던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 모여 미래 그림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차후 한국작가들의 행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개최된 테마전시는 해외도

서전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서 그림책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국내 독자들에게 ‘해갈’의 기회를 제공했다. 테마전시 중 ‘그래픽 예술의 꽃, 어린이 그림책’은 관람객들의 호평이 잇따라 10월 30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할 정도였다. ‘패랭이꽃’이란 아이디어로 온라인망에 글을 올린 한 관람객은 “세계 그림책 역사를 조목조목 되짚고 주요 작가들의 작품 성격을 꼼꼼하게 짚어준 이호백 씨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평도 남겼다.

한편 동적인 활동영역으로 마련된 그림책 상상놀이 ‘칙칙폭폭 그림책 속으로’, 그리고 《무지개 물고기》로 알려진 마르쿠스 피스터의 강연회 등은 어린이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칙칙폭폭 그림책 속으로’를 기획한 이야기숲의 송연옥 씨는 “작년까지는 상업화니, 어른 위주의 프로그램이니 하는 호평이 잇따랐는데 올해는 체험 요소들을 잘 배치해 둔 것 같다”고 호평했다. 한편 오픈하우스란 이름으로 마련된 출판사와 독자의 소통 시간에는 여러 출판사들이 자사의 출판물을 홍보하고, 관련 문화행사를 펼치면서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한술교육은 올해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호평을 받았던 《구름빵》을 소개하면서 실제 먹을 수 있는 빵을 제작하는 등의 특화된 홍보전략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예년과 비교할 때 방문자 숫자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어린이책잔치 행사 사무국의 이필용 씨는 “올해 총 관람객이 5만 7,4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했는데, 이는 행사 초반과 중반에 비가 내린 것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거의 동시에 홍대앞에서 와우북페스티벌이 열렸고, 서울 도심에선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가 열려 그만큼 일반의 관심이 분산됐다는 해석이다. 주최측은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키 위한 준비에 몰두하다보니 홍보가 미흡했다”며 “그러나 지난해보다 프로그램들은 한층 알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필**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